

《史記》 無標記 陳述化구조 연구*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비서술어 위치에서의 陳述化
3. 서술어 위치에서의 陳述化
4. 陳述化의 발생 동인
5. 결론

1. 서론

指稱과 陳述은 품사 방면에서 명사성성분과 동사성성분에 대응하는 語義방면에 서의 술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陳述化는 지칭에서 진술로의 전환, 즉 명사성성분이 동사성성분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두고 말한다. 陳述化의 발생 여부는 통사위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명사성성분이 진술위치에 출현할 때 진술화가 발생하며, 진술위치는 그 진술정도에 따라 ‘약진술위치’에 해당되는 부사어, 보어, 관형어위치, 그리고 ‘강진술위치’에 해당되는 서술어위치로 나눌 수 있다.¹⁾ 따라서 명사성성분이 부사어나 보어, 관형어 그리고 서술어의 위치에 출현할 때 陳述化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도 陳述化의 발생빈도가 적지 않지만, 고대중국어에서는 경제적인 언어구사로 인해 더욱더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그 발생 빈도에 따른 중요성에 비해 기존 연구가 미비하며 그 결론 또한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A00135)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李昭東《史記指稱化現象研究》,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 2010, 22-40쪽.

陳述化의 발생동인에 있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품사자체의 의미성분 변화, 즉 한 단어가 통사적 관계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칭, 진술 성분의 비율에 의해 陳述化 발생빈도의 고저가 형성됨은 비교적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禮’, ‘祀’ 등의 사건명사나 ‘水’, ‘風’의 자연명사 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높은 진술 성분에 의해 陳述化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품사자체의 의미성분 변화는 모든 진술화의 동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李昭東(2011)의 연구에서는 통사적 방면에서 고대중국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隱含에서 陳述化의 동인을 찾았는데, 실제로 진술화가 이러한 통사적 위치에 의해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본문에서는 《史記》에 출현하는 모든 無標記 陳述化구조를 대상으로 먼저 陳述化구조의 종류에 따른 유형을 묘사하고 나아가 이들 유형의 분석을 통해 陳述化 동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史記》에 출현하는 無標記 陳述化구조의 통사위치에 따른 출현횟수는 아래와 같다.

표1. 《史記》 無標記 陳述化구조의 통사위치별 출현횟수

	부사어	보어	관형어	서술어 ³⁾	합
Np(진술화)	338	171	28	242	779

2. 비서술어 위치에서의 진술화

비서술어 위치에서의 진술화는 명사성성분이 소위 ‘약진술위치’인 부사어, 보어, 관형어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진술화로, 서술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에 비해 그 정도가 다소 약하다. 아래에서는 부사어, 보어, 관형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에 대해 각각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부사어 위치

2) 이소동 〈隱含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문학연구》제43집, 2011.

3) 명사가 서술어에 위치한 경우가운데 판단문과 묘사문의 경우는 제외하였음.

부사어는 고대중국어에서 단일품사로는 부사, 동사, 형용사, 수사 등으로 충당이 되며, 명사가 부사어가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동반되는 전치사구조로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때 부사어의 위치는 진술성이 지칭성보다 더 강한 진술위치라 할 수 있으며, 강한 지칭성을 가진 명사가 출현할 때 전치사의 진술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대중국어에서 명사가 단독으로 부사어위치에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일찍이 ‘명사부사어’의 명칭으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명사부사어는 명사가 부사어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의 전형적인 용례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史記》에 출현하는 명사부사어에 대해 간단하게 중심어인 동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른 유형과 유형별 출현빈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秦惠王〉車裂(商君)以徇, 曰: “莫如(商鞅)反者!”(秦惠王은 商君을 능지처참하여 그 시체를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商君 같은 역모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68商君列傳》
- (2) 公子爲人仁而下士, 士無賢不肖皆謙而禮交之, 不敢以其富貴驕士.(공자의 사람됨은 어질어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추었으며, 어질고 불초함을 막론하고 선비들을 예로써 사귀고, 부귀로 인해 선비에게 교만하지 않았다)《77魏公子列傳》
- (3) 〈高〉有大罪, 〈秦王〉令(蒙毅)法治之.(趙高가 큰 죄를 짓자, 진왕은 蒙毅에게 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88蒙恬列傳》
- (4) 〈豫讓〉曰: 臣事(范)(中行氏), 〈范〉(中行氏)皆衆人遇我, 我故衆人報之.(豫讓이 말하기를 “제가 范, 中行氏를 섬길 때, 范, 中行氏는 모두 저를 일반인으로 대우하였기에 저도 일반인으로 그들에게 보답하였습니다.”라 하였다)《86刺客列傳》
- (5) 大臣皆畏其口, 賂遺累千金.(대신들은 모두 그 입을 두려워하여, 수 천금을 뇌물로 주었다)《112平津侯主父列傳》

위의 예문에서 밑줄이 있는 부분은 명사부사어로, 바로 뒤에 출현하는 피수식어인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예문 (1)(2)의 ‘車裂’, ‘禮交’는 ‘수레로써 찢다’, ‘예로써 사귀다’의 의미로 부사어에 충당되어 있는 명사는 서술어와의 의미관계상 공구, 방법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예(3)~(5)의 ‘法治’, ‘衆人遇’, ‘衆人報’, ‘賂遺’는 각각 ‘법에

의지하여 다스리다’, ‘중인의 신분으로서 대우하다’, ‘중인의 신분으로써 보답하다’, ‘뇌물을 주다’의 의미로 중심어와의 관계상 각각 근거, 신분, 객체 성분을 나타낸다. 명사 ‘軍’, ‘禮’, ‘法’, ‘衆人’, ‘賂’는 부사어의 위치에서 진술화가 발생하여, 의미상 ‘전치사+명사’의 의미구조를 띠고 있는데, 고대중국어 전치사의 용법상 공구, 방법, 신분, 근거, 객체 등의 의미성분을 소개하는 전치사 ‘以’의 의미가 隱含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6) 〈衛國〉之法，竊駕君車者罪至刑。(衛國의 법에 군의 수레를 몰래 모는 자는 그 죄가 刑刑에 해당하였다)《63老子韓非列傳》
- (7) 〈呂后〉日夜泣。(呂后는 밤낮으로 울었다)《99劉敬叔孫通列傳》
- (8) 〈趙襄王〉郊迎〈甘羅〉。(趙襄王은 교외에서 甘羅를 맞았다)《71樗里子甘茂列傳》
- (9) 天下之士雲合霧集，魚鱗襍遯，燦至風起。(천하 선비들이 구름과 안개처럼 모이고, 고기비늘처럼 따랐으며, 연기처럼 이르고 바람처럼 일어났다)《92淮陰侯列傳》
- (10) 〈向壽〉曰：“然，吾甚欲〈韓〉合。”(向壽가 말하기를 “그렇다, 나는 정말 韓나라와 연합을 하고 싶소”라 하였다)《71樗里子甘茂列傳》

예문6)의 ‘衛國之法’은 ‘위나라 법에 있어(혹은 의하면)’의 의미로 문두에서 전체 술어의 진술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화제주어로 명명하기도 하지만 그 통사위치의 진술성으로 볼 때 역시 ‘전치사+명사’의 의미구조를 띠므로 여기서는 그냥 부사어로 간주하기로 한다.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 ‘於’ 정도가 隱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7)(8)의 명사 ‘日夜’, ‘郊’는 뒤에 출현하는 서술어와의 의미관계상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 역시 전치사 ‘於’ 정도가 隱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9)의 명사 ‘雲’, ‘霧’, ‘魚鱗’, ‘襍’, ‘風’은 전치사 ‘如’ 혹은 ‘若’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구조로,⁴⁾ ‘구름처럼’, ‘안개처럼’, ‘고기비늘처럼’, ‘불꽃처럼’, ‘바람처럼’의 의미를 띠고 있어 본래의 명사의미가 진술화하여 전치사의 진술성을 함께 표현해내고 있다. 예(10)의 명사부사어 ‘韓’은 여기서 ‘한나라와’

4) ‘如’, ‘若’은 일반적으로 동사로 분류되지만, 여기서는 이들 동사가 문장의 핵심성분이 아닌 수식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치사로 분류하기로 한다.

의 의미로 동사 ‘습’의 대상을 나타내어 전치사구조 ‘與韓’의 의미구조를 띠고 있다.

《史記》에서 부사어위치에 출현하는 명사의 無標記 陳述化구조는 위의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10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아래에서 비교적 독립성이 강한 진술대상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부사어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유형의 예를 ‘명사부사어+중심어’의 형태로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禮交, 禮遇(이상 방법)/ 襁負, 車裂, 口相結, 斫擊殺, 目笑, 左手持, 右手招, 單車來代, 椎殺, 橐載, 膝行, 權使, 目攝, 函封, 面諛, 頭會, 箕斂, 鞬蔽, 械繫, 笞擊, 口畫, 輜車傳送, 利劍刺, 口對, 車隨, 策罷, 口報, 縱殺, 膝席, 簿責, 跂行, 喙息, 口言, 五鼎食, 五鼎烹, 榜笞, 蠱道殺, 蠱殺, 籍奏, 文惡, 目求, 目眙, 磬折, 脯酒禮之, 荊支卜之, 荊灼, 利道, 火耕, 水耨, 椎埋(이상 공구)/ 法誅, 城守, 法治, 文致(이상 근거)/ 客待, 臣事, 蠻夷 僻處, 親戚受城, 國人計功, 師事, 虜使, 客游, 客死, 衆人遇, 國士遇, 國士報, 父事, 長事, 弟畜, 臣從, 奴畜, 禽獸畜, 臣使, 賓服, 師尊, 兄事, 臣畜, 六畜葬(이상 신분)/ 面相見, 肉袒, 面見, 賂遺, 財物賂遺, 賂賜(이상 객체), 郊迎, 心怒, 意哀, 巖居, 川觀, 廷叱, 巷議, 面欺, 廷毀, 道逢, 家居, 衆辱, 廷見, 朝廷見, 面結, 面諛, 廷辯, 腹誹, 心謗, 廷論, 田間飲, 面相約, 庭詰, 道路死, 關市, 心意, 道死, 心挑, 心怨, 心結, 面折, 面觸, 心知, 心望, 面欺, 道可使, 山居, 陸植, 道飛, 谷居, 穴處, 囊盛, 戶說(이상 장소)/ 狼顧, 輻湊, 瓜分, 馬食, 狐疑, 箕踞, 雲合, 霧集, 魚鱗襍選, 燦至, 風起, 風走, 響應, 鳥集, 魑結, 鳥舉, 瓦解, 雲散, 獸聚, 鳥散, 虎爭, 兒啼, 瓦合, 寶藏, 繼至, 雕捍(이상 비유)/ 韓合(이상 대상).

위의 8종 명사부사어의 의미유형과 열거되지 않은 시간과 진술대상의 의미유형에 대한 《史記》 내 출현횟수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史記》내 부사어위치에서의 陳述化 의미유형별 출현횟수

의미관계	시간	장소	공구	방법	신분	근거	객체	비유	진술대상	대상	합
횟수	87	63	65	2	35	13	16	33	23	1	338

2) 보어 위치

보어위치는 지칭과 진술의 각도에서 볼 때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약진술위치에 속하며 '전치사+명사'의 전치사구조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아니면 명사가 단독으로 출현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으로 출현하였다면, 명사가 보어위치에서 陳述化가 발생한 경우라 간주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고대중국어에서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死(죽다)', '爭(다투다)'과 같은 동사는 비교적 순수자동사로 분류되지만, 뒤에 종종 명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 (11) 賈子曰：“貪夫徇財，烈士徇名，夸者死權，衆庶馮生。”(賈자가 말하길 “貪夫는 재물을 위해 죽고, 烈士는 이름을 위해 죽으며, 허세 부리는 자는 권력을 위해 죽으며, 중생들은 생계만을 위합니다”라 하였다)《61伯夷列傳》

'徇財', '徇名', '死權'은 '재물을 위해 죽다', '이름을 위해 죽다', '권력을 위해 죽다'의 의미가 되는데, 'N을 위해'라는 의미요소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以' 혹은 '爲'의 어법의미이지만, 고대중국어에서 이 두 동사와 '爭'과 같은 동사는 이와 같은 의미 구조에 있어 전치사의 도움 없이 바로 관련 명사를 취한다. 이와 같이 원래부터 전치사 없이 동사와 바로 연결되는 명사가 각종 어법의미를 가질 때, 그 어법의미는 동사자체에 부여하고 뒤에 출현하는 명사는 '목적빈어'⁵⁾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리가 있으며, 이들을 명사보어로 간주하여 陳述化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에서는 《史記》에 출현하는 명사보어의 예시를 통해 의미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고 그 구체적인 표현과 출현횟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 (12) 破(雍)將軍(焉氏), (周類)軍(柁邑), (蘇駟)軍於(泥陽). (雍땅의 장군 焉氏를 무너뜨리고, 周類는 柁邑에 주둔하고 蘇駟는 泥陽에 주둔하였다)《95樊鄴滕灌列傳》

- (13) (子賤)爲(單父)宰, 反命於(孔子), 曰：“此國有賢(不齊)者五人, 教(不齊)

5)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 語文出版社, 2003, 52쪽.

所以治者。”(子賤이 單父의 재상이 되어 공자에게 보고하기를 “이 나라에 저보다 어진 자가 다섯이 있어 저에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 하였다)《67仲尼弟子列傳》

- (14) 〈燕昭王〉善其書, 曰: “先人嘗有德(蘇氏), 〈子之〉之亂而(蘇氏)去(燕).”(燕昭王이 그 서신을 좋게 여기고는 “선조들은 예전에 蘇氏에 덕을 베풀었는데, 子之의 난 때문에 蘇氏가 燕을 떠나게 되었다”라 하였다)《69蘇秦列傳》

예문(12)의 ‘焉氏’, ‘柎’은 본래 앞의 동사 ‘軍’의 보어로 뒤 구의 ‘軍於(泥陽)’처럼 전치사 ‘於’가 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장소명사가 직접 동사 뒤에 연결되어 전치사 ‘於’를 隱含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보어는 《史記》 내 전체 명사보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135례로 명사보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예(13)(14)의 명사보어 ‘不齊’, ‘蘇氏’는 ‘不齊보다’, ‘蘇氏에게’의 의미로 앞의 서술어와의 의미관계상 각각 비교 대상과 동작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중국어에서 이들 의미성분은 일반적으로 ‘於+명사’의 전치사구조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명사가 직접 보어위치에 놓여 전치사 ‘於’의 의미정도를 내포한 陳述化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 (15) 使者言單于自將伐國有功, 甚苦兵事.(사신이 말하길 “單于是 스스로 병사를 데리고 타국을 정벌하여 공을 세웠고, 전쟁으로 인해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라 하였다)《110匈奴列傳》
- (16) 〈田駢〉之屬皆已死(齊襄王)時, 而(荀卿)最爲老師.(田駢의 무리는 이미 齊襄王때 모두 죽었고, 荀卿이 가장 나이가 많은 스승이었다)《74孟子荀卿列傳》
- (17) 〈陳涉〉起匹夫.(陳涉은 필부에서 봉기하였다)《121儒林列傳》
- (18) 總之, 〈楚越〉之地, 地廣人希, 飯稻羹魚.(종합하면, 楚, 越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벼로 밥을 먹고,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었다)《129貨殖列傳》

위의 예문에 출현하고 있는 명사보어 ‘兵事’, ‘齊襄王時’, ‘匹夫’, ‘稻’, ‘魚’는 각각 ‘전쟁으로 인해’, ‘제양왕 때에’, ‘필부에서부터’, ‘벼로써’, ‘고기로써’의 의미를 가지는데,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각각 원인, 시간, 래원, 도구의 의미로 해당 어법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以(~인해)’, ‘於(~에)’, ‘由(~부터)’, ‘以(~로써)’의 의미가 명사

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들 명사가 단독으로 보어의 위치에 출현하여 전치사의 의미가 포함된 정도의 의미로 陳述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예문을 통해 살펴본 7종의 명사보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장소보어를 제외한 나머지 6종에 대해 《史記》 내 출현하는 ‘서술어+명사보어’의 형태를 모두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異虻蟻, 賢不齊, 高三王, 下大將軍, 甚己之私, 類朱家, 合大道(이상 비교대상)/ 有德蘇氏, 卑下賓客, 言之上, 得過丞相, 得罪丞相, 言安國太后, 行千金丞相蚡, 言上, 降漢, 得之呂后, 愛幸王, 下人, 見湯貴人(이상 동작대상)/ 謝病, 病酒, 苦兵事, 傷水旱(이상 원인)/ 飯稻, 羹魚(이상 공구)/ 死齊襄王時, 死孝文時(이상 시간)/ 權移主上, 起匹夫, 受詩申公, 受易孔子, 受之待詔者, 必先決蓍龜(이상 래원).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보어를 포함하여 《史記》 내에 출현하는 6종 명사보어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史記》내 보어위치에서의 진술화 의미유형별 출현횟수

의미관계	장소	동작대상	비교대상	래원	원인	시간	공구	합
횟수	135	13	7	6	6	2	2	171

3) 관형어 위치

관형어 위치는 본래 약지칭 혹은 약진술 위치로 동사가 출현하면 지칭화가 발생하지만, 명사가 출현할 때 그 중심어와의 의미관계상 또한 진술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史記》에서 명사가 관형어위치에 놓여 陳述化가 발생할 때 그 진술의미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Np에서 분류동사 ‘像’, ‘如’, ‘爲’ 등이 隱含되어 있는 ‘像/如/爲+Np’의 유형을 띠고 있으며, 다음으로 존재동사가 隱含되어 있는 ‘有+Np’의 유형을 띠고 있다. 그 유형별로 진술화가 발생하는 명사관형어와 중심어를 함께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虎狼之秦, 虎狼之國, 昆弟之國, 自功之色, 千金之裘, 千金之子, 百金之子, 寶馬, 子胥之誅, 吳王之聽, 牙爪之吏, 爪牙吏, 明月之珠(이상 像/如/爲+Np'류)/ 水草處, 貝帶(이상 有/Np'류)/ 鉗徒, 土室之人, 田時, 布被, 刀筆吏, 雀羅, 白馬將(이상 기타류).

‘虎狼之秦’은 ‘虎狼과 같은 진나라’라는 의미로 ‘虎狼’에 분류동사 ‘像’정도가 隱含되어 있고, ‘水草處’는 ‘수초가 있는 곳’이란 의미로 존재동사 ‘有’가 隱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류의 ‘鉗徒’, ‘土室之人’, ‘田時’, ‘布被’, ‘刀筆吏’, ‘雀羅’, ‘白馬將’의 예시를 보면, 관형어에 해당하는 ‘鉗’, ‘土室’, ‘田’, ‘布’, ‘刀筆’, ‘雀’, ‘白馬’는 각각 ‘칼을 쓰다’, ‘토실에 거주하다’, ‘밭에서 일하다’, ‘포로써 만들다’, ‘도끼를 쓰다’, ‘참새를 잡다’, ‘백마를 타다’의 의미로 중심어의 의미와 상관된 여러 가지 의미의 동사 성성분이 隱含되어 있는데,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의 이러한 의미관계는 다음에 언급하게 될 서술어 위치에서의 명사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형성되는 의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3. 서술어 위치에서의 진술화

현대중국어에서 날짜나 요일, 나이,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 등은 별도의 판단동사 없이 직접 단독으로 서술어의 위치에 출현하여 명사서술어가 된다. 고대중국어의 경우 명사서술어가 더욱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판단문에서 서술어는 의미와 상관없이 명사로 충당되며 묘사문이나 서술문에서도 현대중국어에서 볼 수 없는 명사서술어문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술어에 충당되는 명사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진술성에 의해 진술화가 발생하는데, 그 진술화 정도는 바로 서술어가 가지는 진술성 만큼이 된다. 서술어의 진술성, 곧 명사의 진술화 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명사가 각종 서술어 위치에 놓일 때 그 명사에 부가되는 진술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명사가 서술어위치에서 진술화가 발생할 때, 그 진술의미 유형을 크게 ‘V+Np’, ‘P+Np+V’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서술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陳述化를 이 두 유형에 따라 고

찰해보고자 한다.

1) 'V+Np' 진술의미 유형

'V+Np'는 명사성성분 Np가 서술어 위치에 놓여 陳述化가 발생할 때 동사 V의 의미가 隱含되어 있는 경우로, Np가 나타내는 진술의미를 말한다. 이 때 隱含되어 있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Np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성분을 띤다.

①止事⁶⁾

Np가 서술어 위치에서 陳述化한 후 隱含되어 있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止事성분을 나타내는 경우로, 이 때 Np가 진술화 하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동사는 분류 동사, 판단동사, 비유동사 등의 관계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19) 〈孟嘗君〉過〈趙〉, 〈趙平原君〉客之. (孟嘗君이 趙를 들렀을 때 趙의 平原君이 그를 빈객으로 삼았다)《75孟嘗君列傳》
- (20) 〈呂不韋〉曰: 子貧, 客於此, 非有以奉獻於親及結賓客(呂不韋가 말하길 “당신(子楚)은 가난하여 여기서 객이 되더라도 친척들에게 봉양하거나 빈객을 사귄 어떤 방법(재물)도 없습니다.”라 하였다)《85呂不韋列傳》
- (21) 〈廣〉爲人長, 猿臂(李廣의 인물됨은 키가 크고 원숭이 팔을 소유하였다)《109李將軍列傳》

예(19)의 명사 '客'은 서술어 위치에서 진술화하여 '객으로 삼다/여기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삼다/여기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以爲/爲' 등의 진술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20)은 명사 '客'이 '객이 되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동사 '爲' 정도의 의미성분이 隱含되어 있으며, (21)의 명사 '猿臂'은 '원숭이 팔을 닮다' 혹은 '원숭이 팔(원숭이 닮은 긴 팔)을 소유하다'의 의미로 동사 '如/若' 혹은 '有'의 진술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판단문의 서술어는 명사술어문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서술어에 충당되는 명사와 止事관계를 형성하

6) 여기서 '止事'는 문장의 핵심동사가 관계동사가 될 때,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가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나타내는 의미격을 말하는데, 서술의 편의상 그냥 止事로 쓰기로 한다.

는 판단동사 '是/爲', 분류동사'爲', 존재동사'有', 비유동사'如/若' 등이 隱含되어 있는데, 위의 예문 (19)와 같은 명사의 '以動補化' 역시 止事성분이 隱含되어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경제적인 언어사용의 한 방편으로 어휘의미가 약하고 어법의미가 강한 단어들이 종종 隱含되어 사용되었는데, 분류동사, 판단동사 등의 관계동사나 전치사, 접속사 등이 그 대표적인 부류로, 이들의 隱含은 Np자체의 지칭과 진술 성분에 상관없이 통사적인 방면에서 진술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⁷⁾ 이와 관련된 진술화의 발생원인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아래는 고대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단문을 제외한 기타 서술문이나 묘사문에서 서술어에 위치한 Np가 隱含되어 있는 동사와 止事관계를 형성할 때, Np와 그 진술의미를 알 수 있는 주변 단어들과 함께 열거한 것이다.

여기다/삼다: 器之, 妻之, 法其故, 法古, 都之, 都安邑, 客之, 塞鄆阨, 關天下之匈, 德王之賜, 易德, 德公子之矯奪晉鄙兵而存趙, 功之, 席稿, 義之, 世主不臣, 杖馬箠, 魚肉之, 邊山險, 塹谿谷, 子民, 子萬國, 賓之, 關沫若, 微泮柯, 鏤零山, 梁孫原, 母之, 寶卜筮, 可寶, 德嬰之脫孝惠魯元, 侯其將, 關故河南塞

되다: 與疆秦壤界, 鄭之仇(정나라가 원수가 됨), 材不材, 與秦界河, 臣於秦, 與秦接境壤界, 質於齊, 南與楚境, 西與韓境, 北與趙境, 東與齊境, 質諸侯, 帝秦, 餘獨侯, 酒池, 肉林, 隙隴蜀之貨物, 客於此, 質秦

같다: 猿臂, 雷霆, 馬汗血

②受事(객체)

Np가 서술어의 위치에서 진술화가 발생할 때, 새로이 생성된 진술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受事, 즉 동사의 객체를 나타내는 경우로,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가 隱含되어 있다.

(22) 昔(卞和)獻寶, <楚王>刑之:<李斯>竭忠, <胡亥>極刑.(옛날 卞和가 보물을 진상했을 때 楚王은 刑刑을 내렸고, 李斯는 충성을 다했지만 胡亥는 극형을 내렸습니다)《83魯仲連鄒陽列傳》

7) 이소동 <隱含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문학연구》제43집, 2011, 179-197쪽.

- (23) 〈蘇秦〉恐得罪，歸，而〈燕〉王不復官也。(蘇秦은 죄를 언을까 두려워, 燕으로 돌아갔지만, 燕王은 그에게 관직을 주지 않았다)《69蘇秦列傳》
- (24) 〈春申君〉因城故(吳墟)，以自爲都邑。(春申君은 옛 吳墟에 성을 쌓고 스스로 도읍으로 삼았다)《78春申君列傳》
- (25) 〈秦〉數攻(趙)，〈趙〉不甚禮(子楚)。(秦이 누차 趙를 공격했기 때문에 趙나라는 子楚에게 예를 다하지 않았다)《85呂不韋列傳》
- (26) 冬日鹿裘，夏日葛衣，棗糲之食，藜藿之羹，飯土甌，啜土銅，雖監門之養不穀於此矣。(겨울에 사슴갓옷을 입고 여름에 갈옷을 입으며 기장과 현미밥을 먹으며 콩국을 마시고 흙 그릇에 먹고 흙 그릇에 마시니, 비록 문지기라도 이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87李斯列傳》

먼저 예문(22)를 보면, 명사‘極刑’은 서술어의 위치에 놓여 “극형을 받다/ 당하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받다/당하다’의 진술의미가 隱含되어 있다. 예문(23)~(25)에서 서술어에 위치한 명사 ‘官’, ‘城’, ‘禮’는 각각 ‘관직을 받다’, ‘성을 쌓다/이루다/만들다’, ‘禮를 행하다/다하다’ 등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진술의미 ‘받다’, ‘만들다’, ‘(행)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예문(26)의 명사 ‘鹿裘’, ‘葛衣’, ‘食’, ‘羹’ 역시 서술어의 위치에서 진술화하여 각각 ‘입다’, ‘먹다’, ‘마시다’ 등의 동사의미가 이들 명사에 隱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서술어에 충당된 Np가 새로이 생성된 동사의미와 受事관계를 가질 때, 이와 같이 다양한 진술의미가 Np에 隱含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隱含 빈도가 비교적 높은 동사의미가 있는데, Np에 隱含되어 있는 동사의미별로 Np를 열거해보면 아래의 분류와 같다.

받다: 祿, 極刑, 刑, 髡鉗, 削罰, 水旱, 族, 五族, 桎梏

주다: 資, 官, 爵, 罪

짓다/만들다/이루다: 家, 櫛, 名, 壁, 城, 國, 容, 業, 陂池田園, 魃結, 詩, 蒲陶酒

행하다: 力, 禮, 郊祀, 式, 祠, 蝮鷲, 耳語

가지다/띠다: 菜色, 銅色, 束帛, 尸, 虎符

착용하다: 儒服, 朝服, 鹿裘, 葛衣, 素服, 赭衣, <胡>服, 蠻夷服, 冠, 貝帶, 簪筆, 左纛

먹다: 飯, 羹, 糲糲之食, 藜藿之羹

기타: 鼓, 安車駟馬, 黃屋, 杖, 鍾, 軍, 皮

③공간(방향/거리)

(27)故王不如東(蘇子), (秦)必疑(齊)而不信(蘇子)矣.(고로 왕께서는 蘇子를 동쪽 (秦)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秦나라가 만드시 齊나라를 의심할 것이고 蘇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69蘇秦列傳》

(28)《漢》數千里爭利, 則人馬罷(漢은 수 천리를 가서 이익을 다투니, 사람과 말이 모두 지칠 것입니다)《108韓長孺列傳》

④시간

(29)不一年, (陳勝)(吳廣)發矣.(일 년이 지나지 않아 陳勝, 吳廣이 봉기하였다)《118淮南衡山列傳》

(30)《申公》亦疾免以歸, 數年卒.(申公은 또한 병으로 면직하고 돌아가, 수년이 지나 죽었다)《121儒林列傳》

⑤자연현상

(31)《蒧》曰：“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曾蒧이 말하길 “봄옷이 지어지면 어른 대여섯, 동자 육칠인과 沂수가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며 읊조리며 돌아오고자 합니다”라 하였다)《67仲尼弟子列傳》

위의 예문(27)~(31)은 Np가 서술어위치에서 진술화하여 Np에 隱含된 진술의미와의 관계상 각각 방향/거리, 시간,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문(27)(28)에서 명사 ‘東’, ‘數千里’는 “동쪽으로 가다”, “수천리를 가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가다’ 정도의 진술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Np는 각각 방향과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史記》에서 방향과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서술어로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右’, ‘左’, ‘東’, ‘北’, ‘西’, ‘數千里’, ‘千里’의 명사가 출현하고 있다. 예문(29)(30)에서 명사 ‘一年’, ‘數年’은 각각 “一年이 지나다”, “數년이 지나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진술의미 ‘지나다(과)’의 의미가 隱含되어 있고 이 때 Np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문(31)의 명사서술어 ‘風’은 “바람을 쐬다”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Np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史記》에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명사서술어는 이 예가 유일하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서술어는 이 외에도 ‘七日’이 있다.

2) “P+Np+V” 진술의미 유형

“P+Np+V”는 명사성성분 Np가 서술어 위치에 놓여 진술화가 발생할 때 동사 V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치사 P의 의미가 隱含되어 있는 진술의미 유형을 말한다. 《史記》의 無標記 진술화구조에 나타나는 “P+Np+V”의 진술의미 유형에서 Np와 隱含되어 있는 동사 V와의 의미관계상 Np는 크게 도구와 장소의 두 가지 의미격을 가진다.

①도구

(32)左右欲兵之.(좌우에서 그를 무기로 죽이고자 하였다)《61伯夷列傳》

(33)〈項羽〉且之, 問爲誰.(項羽가 그를 보고는 누구냐고 물었다)《95樊鄴滕灌列傳》

②장소

(34)〈朱亥〉袖四十斤鐵椎, 椎殺(晉鄙), 公子遂將(晉鄙)軍.(朱亥가 십 근의 철추를 소매에 숨기고 추로써 晉鄙를 살해하자 공자는 마침내 晉鄙軍을 이끌었다)《77魏公子列傳》

(35)其俗土著, 耕田, 田稻麥, 蒲陶酒.(그곳의 풍속은 정착해서 살고 벼와 기장을 밭에 심으며 포도주를 만들었다)《123大宛列傳》

예문 (32)(33)에서 명사 ‘兵’과 ‘目’은 서술어 위치에서 각각 “무기로써 죽이다(以兵殺)”, “눈으로써 보다(以目看)”의 의미로 진술화하여, 전치사 ‘以’와 동사가 함께 隱含되어 있으며, Np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도구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34)(35)의 명사 ‘袖’와 ‘田’은 여기서 “소매에 감추다(于袖藏)”, “밭에 심다(于田植)”의 의미로 전치사 ‘于’와 동사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경우로, Np가 서술어 위치에서 진술화하여 隱含되어 있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史記》에 나타나는 無標記 陳述化구조 가운데 Np가 진술화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는 위의 두 예밖에 없으며,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다음의 명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兵, 軌, 燭, 籌策, 法, 刪, 咎, 刃, 目, 榜, 鞭笞, 觴, 椎, 鋸, 楯

이상으로 《史記》에 출현하는 無標記 陳述化구조 가운데 서술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의 의미유형과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술의미 유형별 출현횟수를 살펴보면, 위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당 명사의 열거에서 알 수 있듯이, V+Np의 의미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受事성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명사서술어 242례 가운데 135례로 56%의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史記》내 명사서술어의 진술의미 유형에 따른 각각의 출현횟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4. 《史記》내 無標記 명사서술어의 진술의미 유형에 따른 출현횟수

의미유형	V+Np					P+Np+V		합
	止事	受事	공간	시간	자연현상	도구	장소	
출현횟수	60	136	12	3	2	26	3	242

止事성분의 출현횟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단문의 명사서술어를 제외한 묘사문과 서술문 위주로 파악이 된 것인데, 판단문의 명사서술어는 고대중국어에서 판단동사 ‘是’가 탄생하기 이전의 특수한 구문형식으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통계수치는 《史記》내 有標記 陳述化구조인 “Np而Vp(Np)”와 “Vp(Np)而Np”구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공간격의 출현빈도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격은 모두 12회 출현으로 受事보다 현격히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Np而Vp(Np)”, “Vp(Np)而Np”에서 受事격과 공간격의 출현횟수는 각각 15:19, 33:67⁸⁾로 공간격의 출현횟수가 受事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접속사 ‘而’의 어법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간격을 나타내는 방향이나 거리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보다 “~가서(향해서) ~하다” 혹은 “~을 하러(하고) ~가다(향하다)”와 같이 연속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동작의 연결을 나타내는 접속사 ‘而’의 어법의미

8) 이소동 <“Np而Vp(Np)”, “Vp(Np)而Np”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제64집, 2010, 127-131쪽.

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판단이 된다.

4. 陳述化 발생의 동인

陳述化에 대한 연구의 발단은 20세기 말 朱德熙를 시작으로 진행된 지칭화에 대한 편향적 연구로 인한 연구의 균형성 모색에 따른 의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시적으로 지칭과 진술이라는 이론적 범위 안에서 지칭과 상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일찍 시작된 지칭화 연구에 비해 그 양과 범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편소, 편협하고 또한 통시적 관점에서 진술화와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 상당부분 공통성을 갖는 ‘四聲別義’나 ‘音變構詞’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연계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술화 발생의 동인에 대한 연구는 진술화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연구배경으로 인해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최근 형태학 방면에서의 연구 성과들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혼란한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형태학적 방면의 성과를 흡수하여 그 陳述化 발생의 동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외부적 요인(형태적 방면)

최근 중국어의 형태학적 방면의 연구에서는 동일어족인 藏語의 형태분석과 이전의 중국어 四聲別義 현상의 연구와 결합하여 새로이 중국어의 형태변화에 따른 의미 분류에 관한 몇몇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金理新(2006)과 洪波(2009)를 들 수 있다. 金理新(2006)은 藏語의 형태변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소의 전후 결합에 의한 의미 분화를 설명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접두사 ‘-s’, ‘-g’, ‘-r’, ‘-h’와 접미사 ‘-s’에 의해 명사의 서술어화(名謂化)가 발생함에 대해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으며⁹⁾, 洪波(2009)는 중국어 四聲別義의 연구성과를 결합하고 藏語에서 접미사 ‘-s’가 가진 신의미항 생성 기능(賦元기능)과의 비

9) 金理新 《上古漢語形態研究》，黃山書社，2006.

교를 통해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s'가 기타 신의미항 생성의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진술화의 범위를 넘어 명사, 형용사, 동사에 접미사 '-s'가 붙게 되면 이들 단어 의미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의미항이 이들 단어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신분으로 새로이 생성된다는 것이다.¹⁰⁾ 이는 명사가 진술화할 때 반드시 뒤에 각 종 의미관계를 지닌 목적어를 수반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중국어의 형태학적 연구는 周祖謨, 周法高, 唐納 등 학자들이 주장했던 四聲別義 연구의 확대와 심화의 결과로 그 연구결과는 분명히 중국어사 연구의 제반분야에 있어 참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진술화 연구에 있어 중국어의 형태 변화에 따른 의미 분하는 진술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고대중국어의 명사는 영어와 같은 굴절어가 가지는 형태적 수단에 의해 서술어 위치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혹자는 진술화, 지칭화 라는 전환 자체를 부정하고 품사의 확정에 있어 1950년대 중국어 연구의 시발점에서 오랫동안의 논쟁 끝에 부정된 '詞無定類', '依句辨品'의 가치를 다시 내걸기도 하였다.

중국어의 형태변화가 비록 진술화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만 단지 이 연관성은 표면적이고 외부적인 측면일 뿐 진술화 발생의 본질적인 동인은 될 수 없다. 고대중국어에서 형태변화는 진술화가 발생한 모든 명사군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형태변화에 있어 규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洪波에 의하면 四聲別義나 형태변화를 통한 진술화는 거의 전부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화가 되는데,¹¹⁾ 위의 예문에서 보면 목적어가 출현하고 있지 않은 진술화 용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29)(30)의 방향과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다. 또한 고대중국어에서 판단동사 '是'의 부재로 인한 명사서술어는 형태변화의 경우를 한 예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서술어 위치를 제외한 부사어나 보어, 관형어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는 형태변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는 모두 고대중국어에서 어휘의미가 약하고 어법의미가 강한 관계동

10) 洪波(上古漢語*-s後綴的指派旁格功能), 《漢語歷史語法研究》, 商務印書館, 2010, 155-156쪽.

11) 상동.

사, 전치사, 접속사 등의 隱숨에 의해 발생하는 진술화로, 고대중국어 내부의 통사적 규칙과 단어 고유의 높은 진술정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대중국어에서 진술화의 발생은 고대중국어 내부의 발전과정 중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형태변화는 단지 일종의 불완전한 진술화표기로 여겨 진술화의 외부적인 동인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대중국어에서 “성을 쌓다”라고 하는 ‘築城’의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진술화 시켜서 ‘城’이라는 명사만 가지고 표현 하는가라는 물음에 형태 변화는 아무런 답을 해줄 수 없으며 단지 진술화 되었기 때문에 형태적 표기가 추가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만약 형태변화가 진술화 발생의 외부동인이라고 한다면 내부동인이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고대중국어 내부의 통사적, 어휘적 규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내부적 요인

진술화 발생의 내부적 요인이자 근본적인 동인은 고대중국어의 전체 어법 계통 속에서 기타 어법요소들과의 직, 간접적인 관계에 의해 찾을 수 있는데, 아래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사적 방면

고대중국어에서 몇몇 품사들의 隱숨은 고대중국어 어법계통의 일반적 통사규칙이라 할 수 있다. 어휘의미가 없거나 약하고 어법의미가 강한 전치사나 접속사가 대표적인 품사에 속하며 동사 중에서도 A, B 두 항의 의미관계를 밝히는 분류동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존재동사, 그리고 사역동사 등이 이에 속한다.¹²⁾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에서 명사서술어는 바로 이러한 품사들의 隱숨을 반영하는 대

12) 분류동사는 일반적으로 繫辭類와 准繫辭類로 나눌 수 있는데, 繫辭類는 是, 爲, 乃, 卽, 非 등이 해당되고 准繫辭類는 다시 3분하여 1) 作爲/認爲類: 作, 爲 2) 稱爲類: 稱, 謂, 曰 3) 猶若類: 猶, 若, 如, 像 등의 동사들이다. (이소동 〈隱숨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문학연구》제43집, 2011, 181쪽)

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진술화 유형가운데 부사어, 보어, 관형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와 서술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 유형 가운데 止事성분을 나타내는 “V+Np” 진술의미 유형의 진술화가 모두 이에 속한다. 위의 예문 (19)(20)의 ‘客之’, ‘客於此’에서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고 있는 ‘客’은 각각 “객으로 삼다”, “객이 되다”의 의미로 분류동사 ‘以爲’ 혹은 ‘爲’가 隱含되어 있어 고대중국어의 隱含이라는 통사규칙에 부합하는 진술화 형태임에 문제가 없다. 이 외에도 일부 수사관계를 나타내는 “V+Np” 진술의미 유형의 진술화가 이에 속하는데, 존재동사와 사역동사의 隱含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가지다/떠다:菜色, 銅色, 束帛, 尸, 虎符

주다:資, 官, 爵, 罪

받다:祿, 極刑, 刑, 髡鉗, 削罰, 水旱, 族, 五族, 桎梏

짓다/만들다/이루다:家, 櫛, 名, 壁, 城, 國, 容, 業, 陂池田園, 魍結, 詩, 蒲陶酒

위의 Np에서 隱含되어 있는 동사는 ‘주다’, ‘받다’, ‘이루다’, ‘가지다’ 등의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들 동사를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모두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닌다. ‘가지다’라는 진술의미를 갖는 명사 ‘束帛’, ‘尸’, ‘虎符’는 ‘들다’ 혹은 ‘차다’라는 동작 의미에 소유의미가 더하여 진 것이고 ‘떠다’라는 의미의 명사 ‘菜色’, ‘銅色’은 아무런 동작 없이 동사 ‘有’의 본의가 그대로 隱含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다’,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기 명사들 역시 “주고 받는” 동작을 통해 소유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짓다’, ‘만들다’, ‘이루다’ 등의 의미를 隱含하고 있는 명사들 또한 “짓고, 만들고, 이루어서” 현재 소유하고 생겨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Np의 진술의미 요소를 아래와 같은 동작과 결과를 나타내는 진술의미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Np = 동작 而 使 + 주체 + 有 + Np

- 예) 虎符 = 帶 而 使 + 我 + 有 + 虎符
 官 = 給 而 使 + 他 + 有 + 官
 祿 = 受 而 使 + 我 + 有 + 祿
 城 = 築 而 使 + 其處 + 有 + 城

위에서 열거된 Np ‘虎符’, ‘官’, ‘祿’, ‘城’의 진술의미를 보면 각각 “차서 호부를 소유하게 되다”, “주어서 관을 소유하게 하다”, “받아서 녹을 소유하게 되다”, “지어서 성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동작 의미를 제외하면 그 진술의미는 각각 “호부를 소유하게 되다”, “관을 소유하게 하다”, “녹을 소유하게 되다”, “성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가 되어, 사실 동작의미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진술의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이와 같은 진술화 유형에 있어 동작의미보다는 그 결과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중국어의 경제적인 언어구사로 인한 불필요한 성분의 ‘생략’과 당시의 통사적 특징에 따른 품사의 ‘隱縮’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소위 생략이라는 것은 위의 진술공식에서 동작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생략을 가리키는데, Np성분과 주체를 가지고 앞뒤 문맥에 비추어볼 때 어떤 동작인지 충분한 예상이 가능하므로 생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隱縮이라는 말은 바로 소유동사가 隱縮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대중국어의 사용자들이 만약 서술어위치에서 Np를 만났다면 고대중국어 당시의 언어사용 규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류동사/소유동사+Np”의 진술의미를 머리에 떠올렸을 것이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何莫耶(Christoph Harbsmeier)가 선진한어의 명사에 동사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명사를 일종의 ‘분류성 동사’라고 간주하는 것은¹³⁾ 바로 이러한 고대중국어의 隱縮 현상을 반증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명사 가운데 형벌의 종류를 나타내는 ‘極刑’, ‘髡鉗’, ‘削罰’, ‘水旱’, ‘族’, ‘五族’, ‘檣檻’ 등의 명사들은 단지 통사적인 방면에서의 隱縮 뿐만 아니라 어휘적 방면에서 단어자체가 가지는 진술성 또한 높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진술화가

13) 何莫耶(Christoph Harbsmeier): 《先秦漢語的名詞從何處來》, 《古代中國》(Early China), 1983-1985년 9-10기. (朱德熙《關於先秦漢語名詞的動詞性問題》에서 재인용)

되는 단어들이다. 어휘적 방면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2) 어휘적 방면

李昭東(2010)은 명사내부의 진술의미 기초를 시간의, 도구의, 성질의로 나눈 바 있는데, 본문에서도 역시 이 분류에 따라 각종 명사의 내부 진술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受事관계를 나타내는 'V+Np'의 진술의미유형 가운데, 어휘적 방면에서 진술화가 발생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만다: 極刑, 刑, 髡鉗, 削罰, 水旱, 族, 五族, 桎梏

행하다: 力, 禮, 郊祀, 式, 祠, 蝮蠶, 耳語

착용하다: 儒服, 朝服, 鹿裘, 葛衣, 素服, 赭衣, <胡>服, 蠻夷服, 冠, 貝帶, 簪筆, 左纛

먹다: 飯, 羹, 棗糲之食, 藜藿之羹

기타: 鼓, 安車駟馬, 黃屋, 杖, 鍾, 軍, 皮

먼저, '만다'의 진술의미가 隱含된 명사와 '행하다'의 진술의미가 隱含된 명사들은 소위 사건명사로 불려진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내부에 세부 동작의 진행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고 끝나는 의미를 가진 명사군으로 시간성이라는 강한 진술의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風'과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명사들도 자체가 가진 강한 동작성과 함께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사 '軍'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은 모두 강한 도구성 혹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복, 밥, 국, 북, 종, 수레 등의 물질명사들은 하나의 목적, 즉 입고, 먹고, 마시고, 치고, 타는 등의 동작을 위한 도구로써 쓰이는 명사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Np+V'의 진술의미 유형 가운데, 도구를 나타내는 "兵, 軌, 燭, 籌策, 法, 蒯, 咎, 刃, 目, 榜, 鞭笞, 觴, 椎, 鋸, 楯" 등의 명사들 또한 내부에 강한 도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합명사 '軍'을 포함한 시간, 공간, 장소 명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질의로 인해 진술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右', '左', '東', '北', '西', '數千里', '千里' 등의 방향,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 명사는 '이동'이라는 성질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一年’, ‘數年’과 같은 시간 명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없이 부사어 위치에 출현하는 만큼 문장에서 사건의 배경으로 쓰이는 강한 성질의 뜻을 가지고 있다. ‘袖’, ‘田’과 같은 장소명사는 강한 목적성을 가진 점으로 볼 때 앞의 도구의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동작과의 관계상 도구의 보다는 성질이 많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서 진술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통사적 방면과 어휘적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고대중국어의 진술화는 진술화가 발생하는 고정된 단어나 법칙이 없다. 예를 들어 집합명사인 ‘軍’은 진술화하여 그 진술의미가 ‘군대를 진격하다’, ‘군대를 주둔하다’, ‘군대를 지휘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물론 ‘軍’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성질의 때문에 진술화가 발생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진술의미에 있어서는 화용론적이나 수사학적인 방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軍之’, ‘兵之’라고 할 때 ‘군을 주둔하다’, ‘무기로 죽이다’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군이 주둔해서 하는 모든 행위’, ‘무기로써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 고대중국어의 의미적 여운과도 더 부합할 것이다.

5. 결론

본문에서는 《史記》에 출현하는 無標記 진술화구조에 대해 전면적으로 살펴 보았다. 명사성성분이 진술위치에 출현할 때 서로 다른 정도의 진술화가 발생하는 데, 진술화의 정도는 바로 부사어, 보어, 관형어, 서술어의 진술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진술화에 대한 연구는 고대중국어에서 명사부사어, 명사보어, 명사서술어 등의 이름으로 부분연구가 이루어져왔을 뿐,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먼저 각각의 진술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구조를 그 진술의미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예시와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술화의 발생동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서술어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술화구조에 대해 해당 Np가 은합하고 있는 진술의미를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그 진술의미에 따라 진술화의 발생동인을 살펴보았다.

진술화의 발생동인에 대해서는 최근의 형태학적 연구성과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아울러 고찰하였는데, 형태의 변화가 단지 일종의 진술화의 표기로써 외부적인 동인이라면 명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측면에서의 진술의미와 고대중국어 당시의 어법적 규칙에 따른 통사적 계통성은 진술화의 내부적,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고대중국어에서 'V+Np' 혹은 'P+Np+V'의 의미구조를 Np로만 표현한 이유를 통사적, 어휘적 방면에서 찾았지만, 경제적 언어구사와 표현의 여운 중시라는 고대중국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사적 방면에서의 원인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參考文獻》

-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
- 陳祝琴《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2007.
- 李昭東《史記指稱化現象研究》，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2010.
- 李昭東〈隱含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중국문학연구》제43집，2011.
- 李昭東〈“Np而Vp(Np)”，“Vp(Np)而Np” 陳述化구조 연구〉，《중국어문학논집》제64집，2010.
- 朱德熙〈關於先秦漢語里名詞的動詞性問題〉，《朱德熙文集》第三卷，商務印書館，1999.
- 朱德熙〈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朱德熙文集》第三卷，商務印書館(1983/1999).
- 張文國《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中華書局，2005.
- 呂厦敏《左傳名詞陳述化研究》，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2010.
- 馬建忠《馬氏文通》，商務印書館，1983/2002.
- 宋紹年等《古代漢語知識教程》，북경대학출판사，2002.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語文出版社，2003.
- 洪波〈上古漢語*-s後綴的指派旁格功能〉，《漢語歷史語法研究》，商務印書館，2010.

金理新 《上古漢語形態研究》，黃山書社，2006.

《中文提要》

本文全面考察了《史记》里出现的无标记陈述化结构。陈述化相对于指称化，是一种名词性成分转化为谓词性成分的现象。名词性成分出现于陈述位置（谓语，状语，补语）就发生陈述化。特别是，名词性成分在谓语位置出现的时候，我们可以把Np的陈述意义类型分成‘V+Np’和‘P+Np+V’两类。在与新产生的动词语义关系上，当止事，受事，空间，时间等的Np则表示‘V+Np’的陈述语义类型，当工具，处所的Np则表示‘P+Np+V’陈述语义类型。通过如此分析，我们可以从两个方面考察陈述化发生的动机。在最大的层次上，我们如果说，作为一种陈述化标记，把古汉语里存在的形态变化看成一种陈述化的外部动机，那么可以说名词内部固有的陈述因素和古汉语语法系统中的隐含现象就是陈述化的内部的动机。

關鍵詞：陳述化 史記 形態 名詞謂語 隱含 名詞狀語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